

용틀임하는 중국, 지금이 바로 한·중 협력의 적기이다

홍 성 태 · 서울대의대 기생충학교실

18 일 아침에 호텔을 떠나 10시에 류산(廬山) 꼭대기 마을에 도착하였다. 이 곳은 해발고도 1,000미터 정도로 여름 휴양 마을로 매우 번창한 도시이다. 특산물로 죽순살과 버섯(石耳)과 멀치같은 생선 말린 것(石魚)을 팔고 있고 식당 가게에는 개구리, 두꺼비, 미꾸리, 장어, 가재, 달팽이가 즐비하였다.

산속에 있는 류산호텔(廬山賓館)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호텔을 떠나 난창시 江西省 寄生蟲病研究所에 도착했다. 張소장이 사랑을 많이 섞은 보고를 했고 연구소를 둘러 보았다. 공휴일이지만 과장급은 모두 나와 있었다. 장비가 제법 있고 일본 등 외국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여럿 있었다. 조직으로 소장(Zhang Shaoji)과 부소장 2인(Wu Fudong, Wang Longzhang)이 있고 행정실, 과학기술실, 역학과, 면역진단과, 치료와 관리과, 연수교육과, 항원제조실, 임상병동(南昌 제6병원에 소재), 패류관리과(南昌縣에 위치), 나병관리과가 있다.

자체로 주혈흡충과 간흡충의 항원을 만드는데 실장이 쑤서

핑(許雪萍 Xu Xueping)으로 강서성 위생국 謝治民 부국장의 부인이다. 작년에 견협 초청으로 서울에 왔었고 강서성연구소에서 검변 결과를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한다. 영어로 의사 소통이 어려운 것이 흠인데, 간흡충과 주혈흡충의 항원을 만들고 그 표본을 자랑하기에 한 갑씩 얻었다. 강서성연구소 사람들은 매우 호의적이고 열심이었는데 실제로 주혈흡충증 이외에는 별다른 예산이 없으므로 다른 활동이 미약했다. 우리가 관심있는 주제를 잡으면 공동연구할 것이 많고 그 사람들도 매우 협조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소에서도 전산실을 갖추었는데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연구원 한 사람이 나와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처럼 일하고 있었다. 린단단(林丹丹)이 강서성의 패류분포도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파일을 잠깐 보여 주었다. 전산의 기본은 Windows 3.0이었다.

다음 날 새벽, 짐을 꾸려 아래 층에 내려오니 시 부국장과 장 소장이 와 있었다. 공항에 도착해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수속을 밟고 중국동방항공기에 탑승했다. 예정보다도 빨리 비행기가 출발하여 1시간 10분만인 8시 30분에 상해 공항에 도착하여 평정(馮正)소장 일행과 헤어졌다. 공항에 조선족 관광 안내원인 정해규(鄭海奎)가 전세낸 차를 갖고 마중 나와 안내하기 시작했다. 먼저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고,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기록된 돌판이 있는 홍구공원을 구경했다.

안내원을 설득해 한식식당 아리랑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오랫동안 먹은 한식요리라 모두가 맛있어 했고 특히 김치가 맛있어 세 그릇이나 먹었다. 된장찌개가 세상에 이렇게까지 맛있는 것이었다니! 중국요리에서의 해방감은 우리 4인 모두에게 절실했다. 점심식사 후에 옥불사를 관람했다.

한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9시에 상해 기생충병연구소에 도착하여 연구소장 이하 여러 사람의 영접을 받았다. 기념촬영과 방명록 사인을 하고 함께 연구소 실험실을 돌아 보았다. 복도에까지 일부 기자재가 있고, 연구용 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 분자생물학적 연구, 단세포군형체 등 세포배양을 이

유한 연구, 신약물의 분석과 효능 검증 등의 연구를 수행하는 각종 기지재가 있고, 각 연구실마다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 국제적인 연구소임을 실감하였다. 건물의 공간도 매우 넓은 큰 기관이다. 앞에 기숙사겸 방문객 숙소를 짓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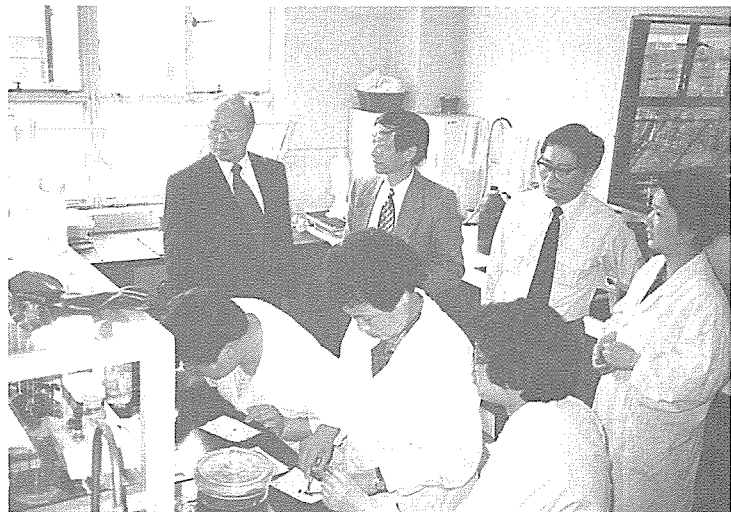
20일 오전 10시에 자동차로 태창시(太倉市)를 향하여 출발했다. 상해연구소 쉬(許隆祺) 선생과 첸(陳薄林, Chen Pulin) 外事主管이 동행했다. 12시에 太倉市 計劃生育委員會, 家庭保健服務中心에 도착하여 太倉市 家庭保健服務中心 부주임이면서 結合項目寄生蟲檢驗實 주임인 張進(Chang Jing)이 함께 점심을 먹었다. 이 때에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하여 정보를 얻었다.

장 주임의 말에 의하면 일년에 4만명을 검사한다고 한다. 이는 초등학교 어린이 전부를 연간 일회 검사하는 것이다. 검사하여 기생충란 양성자는 메벤다졸이나 알벤다졸로 치료하며 검사비 3원, 치료비는 2원을 받는다고 한다. 이 돈은 부모들이 부담하는데 별 불만이 없다고 한다. 원충이나 장내 흡충, 조충은 없다고 했다. 이 보건소는 94년부터 일본 JOICFP로부터 연간 10만불씩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돈으로 주로 장비를 장만한다고 했다.

오후 1시30분 보건소로 돌아와 위원회 부주임이며 가정보건복무중심 주임인 袁炳興(Wian)으로부터 자료를 이용한 보고를 들었다. 태창시는 江蘇省的 남부에 있고 상해시에서

북쪽으로 50km 떨어진 인구 45만명의 도시이다. 이 지역 보건소에서 가족계획과 기생충 관리합동사업(integrate project)을 1984년부터 시작했고, 그 성과가 좋아서 현재는 초기 인구증가를 3.44%에서 1995년에는 0.97%가 되었고 장내 기생충감염률도 1984년 63.6%에서 1995년에 7.29%가 되었다. 현재는 노인 건강을 관리하는 활동을 병행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건혈이 좋은 모델이 되었다.

위원회 주임 류안러(劉安如)



▲ 상해 기생충병 연구소를 돌아보고 있다

가 나중에 나타나 인사하고 함께 검변실과 가정보건 외진실의 둘러 보았다. 검변실에서는 두명이 후층도말 표본을 만들고 두명이 현미경 검사를 하고 있었다. 냄새는 견딜만 하게 환기를 하고 있었고 모두 아주 숙달된 사람들이며 하루에 1,000건을 처리한다고 한다. 가정보건 외진실을 보니 직원과 의사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이용하는 주민은 없었다. 초음파 진단기를 갖추고 있어 임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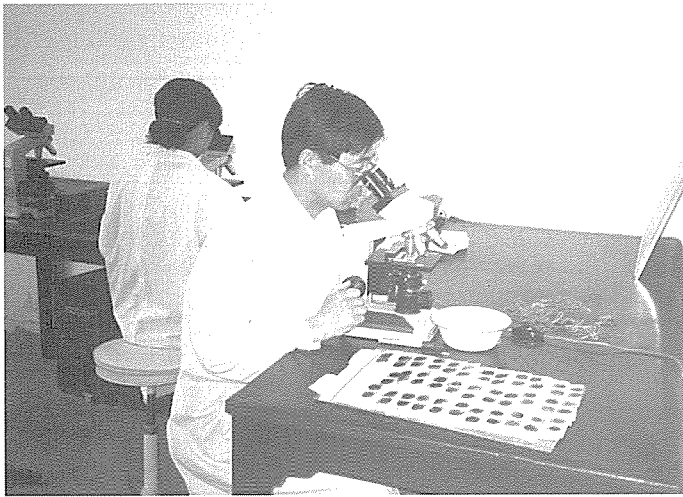
과 관련된 검진을 한다고 한다. 외진 한 번에 0.8원을 내고 여러 검사와 치료를 받으면 50원까지 부담한다고 한다.

태창시를 떠나 蘇州市(Suzhou)로 이동하였다. 한국식당을 수소문하여 찾아서 저녁식사를 했다. 가리아한국관(可利亞韓國館)이라고 깨끗한 집이 하나 있는데 개업한지 열흘되었다고 한다.

다음날 아침식사를 위해 식당에 가니 서양 노인들이 대부분이었다. 아마도 단체 여행객

의 주 코스인가 보다. 호텔을 출발하여 졸정원(拙政園, Juozhengwien)에 먼저 들렀다.

상해로 돌아와 신아광장호텔에 집을 풀고 상해 기생충병연구소에 도착하여 인근 중국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대접 받았다. 상해연구소 측에서 馮正 소장, 陳 외사주임, 許 면역진단실장, 施曉華(Shi Xiaohua) 연구원이 함께 자리했다. 許실장은 여러 면역진단과 분자생물학 기법에 능통한 사람이며 연구



▲ 셀로판 후층도말법을 이용한 기생충 검사

경력이 많은 것이 역력했다. 영어도 잘 하며 대화를 해 보니 설불리 이는 척하면 금방 들통 나겠다 싶었다. 상해 연구소의 보배 할머니임에 틀림없다.

施 연구원은 폐포자충을 연구하고 있어 필자와 서로 관심을 가졌다. 바로 옆에 앉아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앞니가 인상적인 30세 전후의 여자로 매우 순박해 보였다. 서울을 방문하고 싶어 하기에 소장한테 잘 말해 보라고 두 분 다이로반(大老返, Big Boss, 우리 임회장님과 상해 평소장을 뜻함)께 다 들리도록 크게 말하였다. 금년도에 효과가 나타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마지막 날, 우리는 집에 돌아간다는 즐거움에 들떠 새벽 같이 일어나 짐을 꾸렸다. 상해 공항에도 너무 이르다 싶을 만큼 일찍 나가 수속하고 탑승했다. 우리가 이제 또 한 페이지의 한·중 협력을 위한 기록을 남기고 성공적으로 돌아왔다는 자부심이 가슴에 가득하였다.

이번에 중국의 많은 지역을 여행하면서 본 것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면 중국 전체가 공사판이란 것이다. 그 바람에 가는 곳마다 온통 어수선하고 길도 많이 막히고 먼지가 많았다. 그러나 이 공사들이 다 끝나면 나라의 모습이 엄청나게 바뀔 것이 분명하다. 경제적으로도 크게 융통임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동안 경제가 왜 중요한지를 위정자들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깨달았다는 느낌이 전체적으로 다가온다. 다만 이미 물과 대기의 오염이 심하던데 이대로 더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계속 오염을 증가시키면 복구하기가 너무 힘들겠다는 우려가 생긴다.

북경과 상해는 이미 서울이나 동경과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복잡한 대도시가 되었으나 초현대식 건물과 더러운 재래식 뒷골목이 공존하고 있었다. 교통체증과 매연도 심하고 복잡한 길을 자전거 행렬이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순박하고 외부에서 온 손님을 진심으로 환대하고 선물 주고 받기를 좋아한다. 놀기도 좋아하여 술마시고 노래하는 것이 보편화 되었다. 어느 식당이건 큰 홀이 아닌 별도 방에는 노래방 기계가 있다.

우리가 방문한 곳에서는 성 정부와 시정부부터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방문을 사건으로 여기는 분위기이다. 또한 관계된 필요 기관은 모두 구색을 갖추어 놓았는데 기구만 만들고 사람만 박아 놓았지 바쁘게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방문한 각 연구소를 보면 몇몇 사람만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데 여건이 말이 아니어서 잘 안되는 것이 역력했다.

컴퓨터는 비교적 빨리 도입하여 실제로 활용하고 있었다. 테마를 잘 잡으면 그들과 협력하는 것이 우리 연구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에서 바로 두 시간 거리에 기생충 감염의 현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일본과 미국의 학자들이 지금 현장 일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중국이 이대로 발전하면 향후 10년 후에 우리 나라 정도는 거뜰해 보지도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아직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특히 기생충 관리는 적은 돈으로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제로, 유망한 협력대상 사업이 된다. 우리 나라 정부의 관심과 기생충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크게 요망된다. 바로 지금이 그 시기이다. **72**